

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

2009년 8월 첫째주

음악산업 주간동향 리포트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What's Happening in Music Industry? [2009년 8월 첫째주]

8월 첫째주 음악산업 동향

- 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면 창작자의 수익이 더 많이 생긴다
:CCL(Creative Common License)을 통한 저작물 이용/창작의 효과
- 동방신기, SM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
- 美 디지털 음악 소비경로, SNS 인기에 따라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

콘텐츠 목차

1.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7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

2. 산업 동향

2-1. 저작물 이용/창작의 새로운 대안, CCL

2-2. 음악사이트 엠넷닷컴과 뮤직온, 2009년 내 통합 계획 발표

2-3. 동방신기 멤버 3인,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

2-4. 에픽하이, 미국 iTunes 일렉트로닉 차트 7위 기록

2-5. 동두천 록페스티벌(8/14~16일) 및 ETP Fest(8/15일) 개최

3. 기술 동향

3-1. 아이폰, 음악 연주 및 제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소개

3-2. 애플, 대형음반회사들과 '칵테일' 프로젝트 진행

4. 정책 동향

4-1. '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' (7/28일)

4-2. 한국콘텐츠진흥원, '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2010년 중점 추진사업' 발표

4-3.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털사이트의 책임 없음 판결

5. 해외 동향

5-1. 전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, 투자자들 감소로 상황 악화

5-2. 영국 음악 시장 규모 '08년 36억 파운드' '07년 대비 4.7% 성장

5-3. 美 디지털 음악 소비경로,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

※ 관련 기사 및 자료 목록

1 소비자 동향

1-1. 2009년 7월 4주차 음원 판매 현황

순위	멜론(2009.7.19-7.25)		엠넷(2009.7.20-7.26)		도시락(2009.7.20-7.26)		벅스(2009.7.16-7.22)	
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	전주 비 변동	곡명 - 아티스트
1	-	I Don't Care - 2NE1	-	I Don't Care - 2NE1	↑1	I Don't Care - 2NE1	-	I Don't Care - 2NE1
2	↑3	냉면 - 명카드라이브	-	냉면 - 명카드라이브	↓1	냉면 - 명카드라이브	진입	바래 - F.T.Island
3	↑4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-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-	Let's Dance - 퓨처라이거	↓1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
4	↓2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↑17	바래 - F.T.Island	↑1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↓1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
5	↓1	Hot Issue - 4minute	진입	Ab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↓1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진입	보고보고 - 콜
6	↓3	외톨이 - 아웃사이더	↓2	소원을 말해봐 - 소녀시대	-	Hot Issue - 4minute	↓2	결혼해줄래 - 이승기
7	↓1	결혼해줄래 - 이승기	↓2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↑8	Pretty Boy - 2NE1	↓2	Hot Issue - 4minute
8	-	니가 밍다 - 2PM	↓2	결혼해줄래 - 이승기	↓1	결혼해줄래 - 이승기	↓1	결국 너야 - 왁스
9	-	잘가요 내 사랑 - 에이트	↑2	Pretty Boy - 2NE1	↓1	영계백숙 - 애프터쉐이빙	↑39	Everyday - BMK
10	-	Fire - 2NE1	↓3	Hot Issue - 4minute	↓1	외톨이 - 아웃사이더	↓2	별이 빛나는 밤에 - 원투
11	↑1	Candy Man - 브라운아이드걸스	진입	Indian Boy - MC몽	진입	Abacadabra - 브라운아이드걸스	↓2	외톨이 - 아웃사이더
12	↓1	큰일이다 - V.O.S	↓2	외톨이 - 아웃사이더	↑41	바래 - F.T.Island	↓2	니가 밍다 - 2PM
13	↑5	바비큐 - 삼자돼면	↑1	In The Club - 2NE1	↓1	니가 밍다 - 2PM	↓2	잘가요 내 사랑 - 에이트
14	↑7	영계백숙 - 애프터쉐이빙	↑55	보고보고 - 콜	↓4	바비큐 - 삼자돼면	↓2	True Romance - 드렁큰타이거
15	↓1	커플 - 김용준	↓2	니가 밍다 - 2PM	진입	Indian Boy - MC몽	↓9	바보라서... - 고유진
16	↑3	True Romance - 드렁큰타이거	↓8	바비큐 - 삼자돼면	↓5	친구 - 빅뱅	↑33	Love Again - 클래지콰이
17	↓4	Again&Again - 2PM	↓8	가라가라 고!! - 빅뱅	↑3	In The Club - 2NE1	진입	월화수목 금토일 - 수호
18	↓3	줄리엣 - 샤이니	↓6	영계백숙 - 애프터쉐이빙	↓4	잘가요 내 사랑 - 에이트	진입	려인 - 김건모
19	↓3	여성시대 - 씨야,다비치,티아라	↓4	잘가요 내 사랑 - 에이트	↓6	가라가라 고!! - 빅뱅	↑1	Fire - 2NE1
20	↑4	별이 빛나는 밤에 - 원투	-	Let's Go Party - 2NE1	↓3	Etude - 소녀시대	↓5	I'm Good - 크라운제이

(멜론, 도시락, 벅스, 엠넷의 '09.7월 4주차 스트리밍 기준)

- 지난주에 이어 2NE1과 무한도전 앨범 수록곡의 독주
 - 2NE1의 'I don't care'는 지난주에 이어 전 차트 1위 유지
 - 2NE1은 'I don't care' 외에도 'Pretty Boy', 'n Da Club', 'Let's Go Party', 'Fire' 등 주 요곡이 모두 차트 진입
 - 명카드라이브의 '냉면'은 지속적으로 인기, 초반 독주했던 퓨처라이거의 'Let's Dance'를 앞지름 (멜론, 엠넷, 도시락 2위)
 - 퓨처라이거의 'Let's Dance'는 멜론, 엠넷, 도시락 차트 3위
 - 그 외에도 삼자돼면의 '바베큐'(엠넷 16위, 도시락 14위, 멜론 13위), 애프터쉐이빙의 '영 계백숙'(도시락 9위, 멜론 14위, 엠넷 18위)

-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차트 순위에 오른 팀이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, 브라운아이드걸스, MC몽, F.T.Island, 쿨의 신보가 차트 상위권 진입
 - 선공개된 'Candy Man' 이후 타이틀곡 'Abracadabra'를 공개한 브라운아이드걸스는 뮤직 비디오 선정성 논란과 함께 차트 상위권 첫 등장 (엠넷 5위, 도시락 11위)
 - 4집 서커스의 히트 이후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집중해왔던 MC몽의 새로운 앨범 '인디언 보이'는 지난 앨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응이 늦은 편 (엠넷 11위, 도시락 15위)

2 산업 동향

2-1. 저작물 이용/창작의 새로운 대안, CCL

- 힙합그룹 에픽하이, 최근 발매한 리믹스 앨범 'Remixing the Human Soul'에 Hidden Track으로 수록된 '전자강패'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, 배포
 - 음원이 공개된 7/22일에는 에픽하이의 홈페이지 맵더소울(www.mapthesoul.com)의 서버가 여러 차례 다운되는 등 폭발적 인기
 - 에픽하이의 리더 타블로는 6/25~27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 9개국 아티스트들의 모임, GFC(Global Fresh Collective) 비전 컨퍼런스 (주최 :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)에서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“내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” 며 음원의 무료 사용을 일부 지지한바 있음

- 이렇게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을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다른 저작물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CCL(Creative Common License; 공공재 라이선스)이 최근 활성화
 - CCL은 명시적인 마크나 메타 피그 등의 기계적 표시를 통해 일반인들이 일정수준, 혹은 완전히 자유롭게 저작물을 무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

- 이를 통해 (영리 목적이 배제된)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창작자의 홍보/판매 촉진
 - 美 밴드 나인 인치 네일스(NIN), 새 앨범 '고스트 I-IV'(Ghosts I-IV)를 CCL로 무료 공개
 - : 무료 공개 앨범으로 형성된 팬이 판매로 이어지면서 '08년 아마존 베스트 앨범으로 선정, 막대한 홍보 효과와 매출 창출
 - 국내 인디밴드 '장기하와 얼굴들'도 본격적인 인기를 얻기 이전인 '08.8월 자신의 '싸구려 커피'를 비롯한 음원을 CCL 방식으로 무료 공개
- CCL을 통한 음악 비즈니스 모델인 온라인 음악 사이트 'Jamendo(www.jamendo.com)'에서는 유럽 음악가들이 자신의 음악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
 - 현재 공유 앨범 23,000여개로 신인 발굴의 기회 제공
 -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유료 결제시스템을 통해 저작권료 지불
- CCL의 확산은 결국 창작과 창작물 이용을 재정의 할 것
 -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떤 창작(재창작)도 불가능한 현재의 저작물 이용 시스템의 변화
 -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 보상 시스템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

2-2. 음악사이트 엠넷닷컴과 뮤직온, 2009년 內 통합 계획 발표 (7/31)

- 엠넷미디어와 LG텔레콤, 각사의 음악 사이트 '엠넷닷컴' 및 '뮤직온' 통합 계획 발표
 - 음악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고 올 연말경 통합 음악 사이트 오픈 예정
 - 엠넷미디어, 통합된 음악 사이트의 기획과 개발 등 사이트 운영
 - LG, 양사 공동 마케팅 기획과 유/무선 뮤직 통합상품 기획 및 모바일 뮤직온 운영
- 이번 결과는 SKT의 음악 사이트 '멜론'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흡했던 두 경쟁 사이트의 Win-Win을 노린 협력으로, 향후 음악 사이트 경쟁 판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
 - LGT의 뮤직온은 서울음반 인수 등으로 음원의 라이선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멜론에 비해 음원 공급에 약점이 있었음
 - 엠넷미디어의 '엠넷닷컴'은 음원 및 음악관련 콘텐츠 서비스에 강점이 있었으나 무선통신 중심의 음원 소비 흐름에 대응하지 못했음
 - 이번 통합으로 LGT는 엠넷미디어가 보유한 130만곡의 국내외 음원과 8만여개의 방송 및 공연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엠넷미디어도 유선 인터넷에 한정됐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유무선 음악 결합상품 출시 예정

2-3. 동방신기 멤버 3인,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

- 7/31일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(김재중), 매키유천(박유천), 시아준수(김준수),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
 - 이미 4월 그룹 탈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소속사 측에 송부
 - 6월 'SM타운 라이브 09'의 포스터 촬영이 돌연 취소되면서, 해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음
 - 현재 동방신기는 일본 스케줄 및 8/15일 열릴 'SM타운 라이브' 에는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

- 동방신기는 2004년 'Hug'로 데뷔한 후 일본에 진출, 현재 일본내 해외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한 그룹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
 - 2008년 발표한 국내 4집 '주문-미로틱'은 연말 시상식의 대상을 휩쓰는 등 인기
 - 최근 도쿄돔에서의 2회 공연을 매진시키며 일본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
- 소송제기 멤버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'세종'은 이번 가처분 신청 소송의 핵심이 전속 계약 상 불공정 계약 조항에 있다고 밝힘
 - 전속 계약 기간(13년) 및 수익 배분 문제
 - 멤버 개인이 진행 중인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도 소속사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
 - SM엔터테인먼트는 H.O.T, S.E.S, 신화 등 최정상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매니지먼트사로 해당사 소속 가수 중 인기를 모은 그룹은 대부분 데뷔 5년 전후로 불공정 계약 소송 또는 해체 (H.O.T, S.E.S, 해체, 신화, 플라이트더스카이 매니지먼트사 이적)
 - 이에 따라 가수 매니지먼트 時 불공정 계약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
- 한편 본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유노윤호(정윤호) 및 최강창민(심창민)은 현재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소속사 간류 의사를 밝힘
 - 유노윤호는 MBC드라마 '맨땅에 헤딩'(9월 방영 예정, 남자주인공 '차봉군'역)에, 최강창민은 드라마 '파라다이스 목장'에 캐스팅
-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타 그룹에 비해 저조했던 동방신기의 '개인 활동'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
 - 해체 가능성도 높게 대두되어 각국 팬 동요
 - 급거 귀국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은 '해체만은 막아야한다'고 밝혔으나 활동 지속 여부는 향후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멤버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
 - 소송 제기 멤버들과 SM엔터테인먼트의 구체적인 입장은 8/3일 이후 공개

2-4. 에픽하이, 미국 iTunes 일렉트로닉 차트 7위 기록

-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일렉트로닉 리믹스 앨범 'Remixing the Human Soul', 미국 음원사이트 iTunes 뮤직스토어의 일렉트로닉 음악 차트 7위 기록
 - 'Remixing the Human Soul'은 신인 일렉트로닉 밴드 플래닛 쉬버가 에픽하이의 히트곡 전곡을 재편곡, 재녹음, 재믹싱, 리마스터링한 일렉트로닉 앨범
 - 함께 차트에 오른 뮤지션으로는 Moby, Daft Punk, Justice, Portishead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포함됨

- 에픽하이는 지난 4월 독립하여 레이블을 설립한 뒤 iTunes에서 음원을 판매해왔음
 - 또한 7월에는 미국 4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열기도 함
 - 공식 사이트 맵더소울닷컴(mapthesoul.com), 미투데이(me2today), 트위터(twitter), 유튜브(youtube) 등을 통해 전세계 팬과 소통한 것이 본격적인 해외 홍보 활동 없이 음악을 알리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추정

2-5. 동두천 록페스티벌(8/14~16일) 및 ETP Fest(8/15일) 개최

- 국내 최고(最古) 록 페스티벌, 동두천 록페스티벌 개최
 - 일정 및 장소 : 8/14~16일, 동두천 소요산 국민관광단지 내 특설무대
 - 1999년 시작하여 올해 11회 축제 개최
 - 라인업 : 백두산, 김종서밴드, 내귀에 도청장치, 닥터코어911, 네바다51, 디아블로, 고고보이즈, 도원경밴드, 크로우, 슈퍼키드, 피아, 알케미스트리, 뷰렛, 할로우젠, 네미시스, 문희준 밴드 등 30팀 참석 예정
- ETP Fest는 서태지 컴퍼니가 주최하며 대형 해외아티스트로 구성된 라인업이 특징
 - 일정 및 장소 : 8/15일, 서울 잠실 주경기장 (5만명 수용가능)
 - 라인업 : 영국 밴드 킨, 림프 비즈킷, 나인 인치 네일스 등이 참가

2-6. '2009 아시아송 페스티벌' 개최 (9/19일, 서울)

- '2009 아시아송 페스티벌' 일정 및 첫 번째 라인업 발표
 - 일시 및 장소 : 9/19일 18:00,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
 - 주최 :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, 서울특별시
-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, 태국 등 아시아 9개국의 정상급 가수 15여 개 팀이 참가
 - 1차 발표 라인업 : 일본 밴드 각트, 홍콩의 리밍(여명), 대만의 루오즈상(나지상), 인도네시아의 아그네스 모니카, 우크라이나의 루슬라나 등 출연 예정
 - 한국대표로는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선정
-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8월 중순 한국의 톱 가수 2팀이 포함된 2차 라인업 공개와 아시아 신진 뮤지션에게 수여되는 '아시아 신인상' 발표 예정
-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9월초 아시아송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람권 무료 다운로드
- 2004년부터 시작되어 6회째를 맞은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의 장이자 아시아 최대의 음악축제로 발돋움
 - 아시아 각국의 정상급 가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대중문화축제
 - 이 행사를 위해 지금까지 2만50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아시아 각국 주요 매체들도 취재차 한국 방문

3 기술 동향

3-1. 아이폰, 음악 연주 및 제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소개

- 아이폰으로 음악 연주 및 제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장
 - 아이폰을 통해 음악 연주는 물론 제작까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등장
 - 신개념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해 애플의 디지털 음악 시장 영역이 확대
 - 아이폰의 터치 기능을 통해 스크린에 손가락으로 연주할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색다른 연주 가능
 - 음악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소비자들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 - 피아노, 기타, 드럼, 오카리나 등의 악기를 아이폰용 APP로 개발하여 누구나 아이폰으로 음악 연주가 가능하며 음악 믹싱, 즉석 작곡 등이 가능한 APP들이 개발됨
 - 제작관련 APP로는 대표적으로 디제이처럼 음악을 믹스하는 'Jamble Music Mashups', 키보드, 드럼이 포함되어 있어 잼연주가 가능한 버츄얼 음악 스튜디오인 'iSyn - Virtual Music Studio', 음악제작 프로덕션 툴인 'Intua BeatMaker' 등이 5달러~20달러에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
-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하지는 않음
 -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은 핵심기능만 탑재하였고 모바일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기존의 전문적인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
 -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음
 - 애플 스토어를 통한 판매로 많은 잠재적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
 - 애플의 디지털 음악에 대한 다각적 노력이 오히려 음반 판매 시장 위축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



[그림] 아이폰의 음악 연주 애플리케이션 예시

3-2. 애플, 대형음반회사들과 '칵테일' 프로젝트 진행

- 애플, 신개념 음반을 판매하는 '칵테일(Cocktail)' 프로젝트 진행
 - 파이낸셜 타임즈(7/27일)에 따르면 애플이 디지털 음원 판매 증가를 위해 4개의 대형 음반회사들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'칵테일' 프로젝트 진행
 - '칵테일'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EMI, 소니뮤직, 유니버설 뮤직 등의 음반회사들과 애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9월 공개될 예정
 - 사진과 가사, 동영상, 라이너 노트 등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인터랙티브 앨범으로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통해 공급할 계획
 - 애플은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통해 곡당 판매를 지속해왔으나 앨범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'칵테일' 프로젝트가 개발된 것으로 예상됨
- 태블릿(Tablet) 디바이스 출시에 맞추어 칵테일 프로젝트도 동시 발표 예정
 - 애플은 태블릿(Tablet)으로 불리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휴대용 PC기기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
 - 애플의 신형 태블릿(Tablet)은 10인치 크기의 스크린을 탑재하고 있으며 '칵테일'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발표할 예정
 -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애플의 신형 태블릿(Tablet)이 아이팟, 아이폰에 이어 새로운 디바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 - PC업계의 저가용 넷북과 아마존의 전자서적용 단말기 '킨들'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

4 정책 동향

4-1. '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' (7/28일)

- 일시 및 장소 : 7/28일 14:00, 서울 여의도 63빌딩
- 개최 :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,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,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
- 주제 : 국내 콘텐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논의
 - 콘텐츠의 불법복제 심각성과 해결방안, 한류산업의 재점화와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 및 참석자 자유 발언
- 가수, 배우, 제작자 등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의 불법 복제 공유 문제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제안의 형식으로 '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건의문' (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/불법 유통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/콘텐츠 수익의 분배 정의 수립/대통령 직속의 콘텐츠 보호 및 관리 기구 신설)을 전달

- 7/23일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및 의견 전달
 - 개정저작권법의 핵심은 3회 이상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와 서비스업체를 규제하는 이른바 '삼진 아웃제'
 - 이를 통해 저작물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확인

4-2. 한국콘텐츠진흥원, '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

-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'스토리' 개발을 위한 창작센터 개설
 - 원작 스토리 고갈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외국산 원작 의존도가 높아짐
 - 2010년 집단 창작 등 20개 프로젝트 진행 예정
 - 창작된 스토리의 유통을 지원하는 스토리뱅크 운영
- 지원 사업도 현재 141개 → 2010년 103개로 집중화하여 집행, 지원 규모를 확대
 - 기존 소규모로 장르별로 지원하던 콘텐츠 사업 지원을 분야를 통합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에 집중 투자
 - 기획부터 평가까지 담당 직원의 책임을 일원화한 프로젝트별 책임매니저(PM) 도입, 핵심 전략사업 지원단 구성

4-3.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털사이트의 책임 없음 판결

- 서울중앙지법,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포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판결
 -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싸이월드 및 네이트에서의 음원 무단 업/다운로드 행위 방치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
 -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
-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 인정
 - 권리자의 청구가 있기 전부터 회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강제적인 차단 행위에 대한 의무는 없음
-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관계자가 저작권 침해로 포털사이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거인 '방조 책임'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한편 7/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 파일 헤비업로더와 방치 웹사이트에 대한 삼진아웃제의 6개월 정지명령은 2010.12월경 처음 발효될 것으로 예상

- 계정정지 명령이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웹하드나 P2P의 계정에 대해 해당 웹하드나 P2P서비스 계정을 차단
- 계정정지 기간은 최초 명령 시 1개월, 추가 적발시 3개월, 3회 적발 시 6개월 정지 명령
- 각각의 계정정지는 3회의 경고 조치 이후 시행되며 매 경고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와 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함
- 따라서 3회 경고 후 계정 정지를 3번 받은 6개월 계정 정지 명령은 차년도 발효 예상

5 해외 동향

5-1. 전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, 투자자들 감소로 상황 악화

- 미국에서 가장 오랜 벤처 자본 업체 가운데 하나인 Venrock Associates 의 음악 산업 투자 담당자 David Pakman에 따르면 디지털 음악 시장에 투자를 했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감소
 - 기존 투자 자본을 받은 디지털 음악관련 신생 벤처 회사 109개 중에서 5개 미만의 회사만이 투자액 환수가 된 실정
 - 투자자들은 초반에 디지털 음악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자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SNS(Social Networking Service)※ 사이트로 자본 이동
- 트위터 및 페이스북과 같은 SNS사이트가 투자 선호처로 각광받으면서, 음악 산업 또한 SNS사이트(트위터, 마이스페이스 등)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형성
 - 지속적인 사용자 모집과 유지를 위해 SNS사이트는 콘텐츠 제공 필요
 - 트위터의 경우 회원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형태로 등장, 새로운 플랫폼 형성
 -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SNS사이트에서 즉각적인 생각을 공유
 - 음악 산업에서는 이런 점을 활용하여 뮤지션과 팬을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SNS사이트를 활용, 음악과 SNS를 결합한 모델 제시로 투자 유치
 -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형태도 아이튠즈,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/유통 형태에 맞게 변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필요
- ※ SNS :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의 줄임말로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싸이월드, 해외에서는 페이스북(Facebook), 마이스페이스(MySpace) 등이 대표적이며 음원 스트리밍 등의 음악 서비스와 결합하면서 디지털 음악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

5-2. 영국 음악 시장 규모 '08년 36억 파운드로 '07년 대비 4.7% 성장

- 영국 음악저작권협회(PRS for Music), 7/20일 Economic insight에서 영국 음악 시장의 규모가 성장했다고 밝힘
 - 음악시장 매출액은 2007년의 35억 파운드에서 2008년 36억 파운드로 4.7% 증가
 - 소매제품의 판매는 감소하였지만 음반시장의 다른 분야는 확연히 성장
- '08년 음반시장 B2C(Business to Customer)분야의 매출은 27억 파운드로 '07년보다 3% 증가
 - 라이브 공연 참석자 수의 증가폭은 소매제품의 감소폭보다 커, 음반시장 소비자들의 소비량 증가 추정
- B2B (Business to business)의 매출은 9억 2천 6백만 파운드로 2007년보다 10% 증가
 - 현재 B2B 매출은 음반시장 총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
- 영국 기업의 음악시장 소비형태 중 '08년 광고와 스폰서십에 사용한 비용은 8천9백만 파운드로 TV가 2천 5백만 파운드(28%), 광고 지원 및 라이브 공연 스폰서십이 2천 4백만 파운드와 2천 3백만 파운드로 각 27% 차지
 - 스폰서십, 라이선싱, 광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 등장

5-3. 美 디지털 음악 소비경로,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

- CNN, 최근 미국 청소년의 음악 소비 성향이 스트리밍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
 - 무료 스트리밍, SNS 음악사이트 등 음악 소비 방식이 확대
 - 굳이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소유하기보다 무료로 스트리밍 음악을 즐기는 경향
- 대표적인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'판도라'와 '마이스페이스 뮤직' 추천
 - 판도라 : 좋아하는 가수나 곡명을 입력하여 자신만의 라디오 방송국 구축 가능
 - 마이스페이스 뮤직 :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인 마이스페이스에서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로 가수들의 효과적인 신곡 마케팅 툴로 각광
 - 랩소디 : 회원제 음악 서비스 제공(월 12.99달러에 600만곡을 스트리밍 제공)
-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의 부상은 현재 웹에서 각광받는 주제인 SNS와 음악을 결합한 '소셜 뮤직' 사이트의 등장에 기인
 -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음악을 듣는 이들과의 사회적 교류
 - 블립에프엠(Blip.fm) :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트위터와 유사한 음악 사이트로 블립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곡을 짧은 글과 함께 올리면 지인들과 공유가능, 이 내용이 자동으로 자신의 트위터 팔로어(follower)들에게도 전송
 - 아이밈(imeem) : 음악 검색과 소셜 네트워킹을 결합한 형태로 사용자들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친구들과 쉽게 음악을 공유

- 이런 흐름에 따라 과거의 파일 공유 사이트들도 스트리밍 방식을 채택하여 귀환
 - 냅스터 : 월 5달러에 700만곡의 음악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거나 월 5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
- 이런 소비 성향의 변화와 SNS 음악 사이트의 성황에도 불구하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
 - 유료화 또는 광고 수익 모델 모두 명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함

5-4. 미, 개인상대 2번째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해 거액의 벌금 판결

- 미 연방법원, 조엘 터넨바움(Joel Tenenbaum)에게 총 30곡에 675,000 달러 벌금형 판결
 - 미국음반산업협회 RIAA(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)가 4대 음반사를 대리하여 보스턴 대학교 졸업생인 25세의 조엘 테넨바움(Joel Tenenbaum)을 고발
 - 터넨바움은 800곡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혐의를 인정받았으나 음반사는 그중 30곡에 대한 배상요구를 했으며 배심원은 테넨바움의 불법행위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, 곡당 22,500달러에 총 675,000달러 배상판결
- 제이미 토마스 라셋 사건(2009/6)에 이어 두번째 RIAA의 개인상대 불법 음원 다운로드 및 공유 소송건 재판임
 - 제이미 라셋의 경우 24곡에 192만 달러의 벌금형 보다 큰 액수로 과도한 배상금 지급 판결논란 여지가 있음
 -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통상 불법음원다운로드의 경우 곡수에 상관없이 소송건당 750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, 혐의행위가 의도적이었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뜻으로 곡당 15만 달러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 - 연방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후 즉시 심리에 들어갔으며 테넨바움의 불법행위가 의도적인지, 실제 음반사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가 돌아갔는지를 추궁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제이미 토마스 라셋의 경우처럼 더 많은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음
- 미국음반사업협회(RIAA)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네티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자 함
 - 미국의 계속되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와 공유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 판결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과도한 배상금 지급 판결과 평결로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네티즌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

별첨 관련 기사 및 자료

1-1. 2009년 7월 3주차 음원 판매 현황

엠넷 www.mnet.com

멜론 www.melon.com

도시락 www.dosrak.com

벅스 www.bugs.co.kr

2-1. 저작물 이용/창작의 새로운 대안, CCL

한국재경신문, 09/07/25, 'MTV 컬처: GFC(Global Fresh Collective)' 25일 방영

스포츠조선, 09/07/23, '전자깡패' 무료배포...에픽하이 흥피 다운

주간한국, 09/07/31, CCL, 내 창작물의 사용을 허하노라

2-2. 음악사이트 엠넷닷컴과 뮤직온, 2009년 內 통합 계획 발표

이데일리, 09/07/24, 2NE1 TV, 아웃사이드 음반,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...7곡 '부적격'

마이데일리, 09/07/24, 아웃사이드, 7곡 무더기 청보위 유해매체 판정

2-3. 동방신기 멤버 3인,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

아시아경제, 09/07/31, 정상 5년 아시아 대표 그룹' 동방신기, 해체되나

노컷뉴스, 09/07/31, 동방신기' 재중·유천·준수, SM에 '전속계약 풀어달라' 요청(2보)

연합뉴스, 09/07/31, 동방신기 3명 SM전속 계약정지 가처분신청

스타뉴스, 09/07/31, 재중-유천-준수 변호인측 "SM 계약서, 불공정약관 존재" 주장

이데일리, 09/07/31, 동방' 준수·재중·유천, 'SM 소송' 갈등 이유는?

조이뉴스, 09/07/29, 무대는 좁다'...男 아이돌스타, 안방극장 진출 '붓물'

2-4. 에픽하이, 미국 iTunes 일렉트로닉 차트 7위 기록

서울경제신문, 09/07/24, 에픽하이, iTunes 美앨범차트 톱10 진입

한국경제, 09/07/25, 에픽하이, 아이튠즈 탑 10에 올라 '세계적인 뮤지션과 어깨 나란히'

2-5. 동두천 록페스티벌(8/14~16일) 및 ETP Fest(8/15일) 개최

스포츠칸, 09/07/29, 록페스티벌 2제, ETPFEST와 동두천 또 일정 겹쳐

2-6. '2009 아시아송 페스티벌' 개최 (9/19일, 서울)

아시아경제, 09/07/24, 슈주-소시, 각트-여명과 아시아송페스티벌 참석

뉴시스, 09/07/24, 슈주·소녀시대, 아시아송페스티벌 출연

마이데일리, 09/07/24, 슈주-소시-각트-여명, '2009 아송페' 참여 확정

3-2. 애플, 대형음반회사들과 '컵테일' 프로젝트 진행

전자신문, 09/07/27, 애플 '컵테일'로 음반시장 판도 바꾼다.
 매일경제, 09/07/27, "애플-음반사, 디지털음원 묶음 판매 검토"
 IDG코리아, 09/07/27, "애플 태블릿, 신개념 음반과 함께 연말 등장"
 중앙일보, 09/07/27, 애플 '태블릿 디바이스' 내년초 나온다?
 아이뉴스24, 09/07/26, 애플, 넷북대신 '맥 태블릿' 내년초 출시

4-1. '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' (7/28일)

텐아시아, 09/07/28, 휴짓조각으로 전략해버린 음악의 시대
 마이데일리, 09/07/28, 유인촌, "저작물 제값 받는 '정부 사이트' 기획중"...저작권 토론회
 스타뉴스, 09/07/28, 유인촌 장관 "음원보다 음반 보호육성에 집중"
 헤럴드경제, 09/07/28, 오늘 정부-음악-영화 업계 한 자리 모여 大토론회
 아시아경제, 09/07/28, 음반기획사-이통사 수익분배 문제, 해결될까②
 아시아경제, 09/07/28, 불법 복제·다운로드 정부-연예계 공동대응 왜?①
 헤럴드경제, 09/07/29, 정부주도 콘텐츠 유통사이트 나온다

4-2. 한국콘텐츠진흥원, '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2010년 중점 추진사업' 발표

내일신문, 09/07/31, 콘텐츠 포털 '위콘'이 뜬다
 뉴데일리, 09/07/30, 영상·음원·캐릭터...콘텐츠포털 만든다
 연합뉴스, 09/07/30, 내년 중 콘텐츠 유통 포털 개설(종합)
 매일경제, 09/07/30, 문화부, 콘텐츠 유통포털 내년 개설
 아시아경제, 09/07/30, "'될성부른' 콘텐츠 팍팍 밀어준다"

4-3.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털사이트의 책임 없음 판결

파이낸셜뉴스, 09/07/29, "누리꾼 저작권 침해행위, 포털업체 방조책임 없다"
 연합뉴스, 09/07/25, 저작권 관련 계정정지 발효시점은 12월쯤

5-1. 전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, 투자자들 감소로 상황 악화

cnet news, 09/07/23, Cnet - Digital music suffering from entrepreneur drain
 cnet news, 09/07/24, Ashton Kutcher: Twitter will change media
 cnet news, 09/07/22, Andreessen explains his move to venture capital

5-2. 영국 음악 시장 규모 '08년 36억 파운드'로 '07년 대비 4.7% 성장

Techdirt, 09/07/23, UK Music Industry Economists Admit: Music Industry Getting Bigger, Not Smaller

5-3. 美 디지털 음악 소비경로,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

전자신문, 09/07/27, "음악, 가지면 뭐해 한번 들으면 됐죠"

5-4. 미, 개인상대 2번째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해 거액의 벌금 판결

AP, 09/07/31, Jury begins deliberating in music downloading case

Wired News, 09/07/31, Jury Dings File Sharer \$675000, RIAA Prevails

ZDNet, 09/07/31, Tenenbaum verdict: \$675K

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콘(www.wecon.kr)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

과장 김도윤(TEL 02-3153-1286 , doyun.kim@koCCA.kr)